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 벽장식 도상 연구

종교 서사와 의례 공간의 시각적 구축

Iconographic Analysis of Wall Decorations at Taihui Temple in Jingzhou

Visual Construction of Religious Narrative and Ritual Space

주 저 자 : 역진흙 (Yi, Zhen Xi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최경란 (Kyung, Ran Choi)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
ran@kookmin.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5.3.826>

접수일 2025. 09. 10. / 심사완료일 2025. 09. 13. / 게재확정일 2025. 09. 15. / 게재일 2025. 09. 30.

Abstract

Taihui Temple in Jingzhou, one of the best-preserved Ming Dynasty Taoist complexes in southern China, contains a comprehensive wall decoration system that embodies religious meaning through thematic content, spatial configuration, and symbolic expression. Drawing on extensive fieldwork and Panofsky's three-level iconological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reliefs, paintings, and sculptural elements of the Zushi Hall and its surrounding structur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images—ranging from Taoist deities and mythological narratives to auspicious folk motifs—form a coherent network of religious storytelling closely aligned with spatial hierarchy and ritual movement. Beyond their decorative role, they serve as mechanisms of spatial guidance, psychological orientation, and symbolic authority. This study thus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visual imagery in constructing sacred experience and provide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regional Chinese religious architecture and its visual heritage.

Keyword

Iconology(도상학), Sacred Space(종교 공간), Resilient design(탄력적인 디자인), Cultural Symbolism(문화 상징)

요약

荊江紫雲 태회관(荊州 太暉觀)은 중국 남부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명대(明代) 도교 궁관(宮觀) 중 하나로, 그 벽장식 도상 체계는 내용, 구조, 문화적 함의 측면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종교 시각 시스템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량의 시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 범위를 조사전(祖師殿) 및 그 주변의 부조, 채화, 조각 장식 요소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학 삼단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도상의 유형, 상징 기호, 공간적 삽입 기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태회관의 벽장식 도상은 신직 형상, 도교 신화, 세속적 길상(吉祥) 소재를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종교 서사망을 구성할 뿐 아니라, 공간 배치와 건축 의례 동선과의 정합을 통해 시각화된 신앙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도상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공간 유도, 심리 감응, 종교 상징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각 서사-공간 질서-신앙 논리'가 융합된 구조의 전형을 이룬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태회관(太暉觀)의 건축 및 벽장식 개요

3. 태회관(太暉觀) 벽장식 도상의 내용 및

기능 분석

- 3-1. 형식적 고찰: 구성 질서, 표현 기법 및 색채의 통합 체계
- 3-2. 내용 탐색: 제재 유형, 도상 구조 및 문화적 함의
- 3-3. 의례 공간에서의 벽장식 도상의 구성 작용
- 3-4. 소결

5. 결론 및 논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은 중국 징저우시 고성 서문 밖의 태휘산(太暉山) 위에 위치한 국가급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이다. 이 도관(道觀)은 명대(明代) 홍무 26년(1393년)에 창건되었으며, 명나라 황제 주원장(朱元璋)의 열두 번째 아들인 상헌왕 주백(湘獻王 朱柏)이 자금을 출자하여 중건한 것이다¹⁾. 주백은 간언(諫言)을 피해 태휘관의 위치에 자신의 능묘(陵墓, 표 1 참조)를 도관으로 개조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태휘관 건축의 실질적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징저우의 대표적인 ‘삼관(三觀)’ 중 하나로 꼽히는 태휘관은 한때 도교의 고위 도사들이 모이는 중심지로 기능하였다²⁾. 태휘관의 건축과 벽장식을 고찰하는 것은 명대 도교 건축의 예술적 양식과 문화적 함의를 밝혀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 의례 공간의 구성 원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태휘관(太暉觀)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방대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발표된 도교 건축 및 장식 예술 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상학의 3단계 분석 체계—기술적 서술(前도상적 분석), 내용 해석(도상적 분석), 의미 해명(도상학적 해석)—을 적용하여 벽장식 도상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현장 촬영 사진과 주요 학술 논문을 중심 자료로 삼아, 태휘관 자체의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벽장식 도상이 담고 있는 종교적 서사 구조와 의례 공간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1) Xu, W., ‘On the Death of Prince Zhu Bo of Xiangxian’, Journal of Yangtze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08. Vol.31, No.05, pp.20–24.

2) 『Jiangling County Gazetteer, Volume 64: Temples and Monasteries』, Guangxu 2nd Year of the Qing Dynasty, 1876.

[표 1] 태휘관(太暉觀) 앞 상헌왕(湘獻王) 주백(朱柏)의 능묘 및 세부 요소³⁾



명대 상헌왕 능묘 현판



〈명대 상헌왕 능묘 정면〉



명대 상헌왕의 생애 기록



능묘 앞 수호신 웅중(翁仲)



능묘 앞 수호 짐승 석상(石象)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종교 서사와 의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수행하는 복합적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 건축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벽장식은 단순한 장식적·미학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 함의, 의례적 논리, 신앙적 상징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시각 매체로 기능한다⁴⁾. 태휘관(太暉觀)은 명대(明代)에 조성된 대표적인 궁관식 도관(宮觀)으로, 그 조사전(祖師殿) 및 부속 건축군에

3) 저자 직접 촬영

4) Liu, G., ‘An Analysis of the Formal and Symbolic Connotations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al Ornamentation’, Master’s thesis, Tsinghua University, 2004.

는 석조, 전조, 채화 등의 장식 구성 요소가 다수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들 도상은 주제의 폭이 넓고 배치가 질서 정연하며 양식 또한 다양하여, 고도의 상징 체계와 시각적 유도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⁵⁾. 기존 학계의 태휘관(太暉觀) 연구는 주로 건축 형식과 역사적 연혁에 집중되어 왔으며, 벽장식 도상이 종교 공간 구성의 매개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체계성과 도상의 층위적 분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도상학(圖像學)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현장 조사 자료와 건축 공간의 구성 논리를 결합하여 연구를 전개한다. 특히 태휘관(太暉觀) 벽장식이 형성하는 시각적 체계를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도상 내용의 유형 분류, 둘째, 상징 기호의 문화적 해석, 셋째, 도상과 의례 구조 간의 상호작용 관계이다⁶⁾. 연구 방법은 주로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가 제시한 도상학(Iconology)의 3단계 분석 틀에 기반을 둔다. 이에 따라 첫째, 전도상적(前圖象的) 수준에서 시각적 요소에 대한 기술적 묘사를 수행하고, 둘째, 도상적(圖象的) 수준에서는 이미지 내용의 역사적 식별을 진행하며, 셋째, 도상학(圖像學)적 수준에서는 이미지 내포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부조와 채화에 나타난 인물 형상, 성직 위계, 서사 구조, 기호 조합 등이 담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과 제도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드러낸다⁷⁾.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자가 태휘관(太暉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대량의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장식 부재의 실측, 문양의 식별, 공간 맥락의 재구성 등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벽장식의 분포 양상과 의례 동선 간의 구조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상이 공간 위계, 신앙 심리, 시각 유도 등의 측면에서 수행하는 실제

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본 논문은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태휘관(太暉觀) 벽장식 도상의 구성 체계는 어떻게 도교의 우주관과 신성 위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도상들은 공간 내 의례 실행 과정에서 어떤 시각 기호 조직을 통해 종교적 분위기와 참여감을 강화하는가? 본 연구는 도상학과 공간 분석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 경로를 통해, 지역 도교 건축 장식에 관한 기존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통 종교 건축의 시각 유산 해석을 위한 실천적 분석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태휘관(太暉觀)의 건축 및 벽장식 개요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은 고성 동남쪽 구역의 회선교(會仙橋) 복단에 위치하며, 지세가 탁 트이고 물가에 인접하여 조성되었다. 전체 공간 구조는 남북 중심축을 따라 전개되며, 하부에서 상부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식을 갖춘다. 현재 존속하는 도관 건물은 산문(山門), 조성문(朝聖門), 조사전(祖師殿)을 중심으로, 양측에 약왕전(藥王殿), 삼관전(三官殿), 낭낭전(娘娘殿), 능소보전(凌霄寶殿), 문창전(文昌殿), 재신전(財神殿) 등 보조 신전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인 명·청대 도교 궁관(宮觀)의 공간 구성을 이룬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건축 배치는 도교 건축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중축 대칭·주중 질서·공간’의 점진적 전개라는 구성 이념을 구현하며, 동시에 명대 관영 도관의 제도화된 건축 양식을 반영한다⁸⁾.

[표 2]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 주요 건축 분포⁹⁾

	
태휘관(太暉觀) 현판 (구산문(舊山門)에 걸려 있음)	신산문(新山門)의 장식 세부

5) Jiang, P.,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Form and Decorative Features of the Zushi Hall in Taihui Temple, One of the "Three Temples" of Jingzhou', Ancient Architecture and Garden Technology, 2017. No.03, pp.69-74.

6) Panofsky, E.,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Routledge, 2018, pp.2-3.

7) Yi, Z., 'An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Banknote Designs of the Farmers Bank of China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Hunan Packaging, 2021. Vol.36, No.05, pp.60-63.

8) Wang, G., & Zhou, D., 'Random Notes on Taihui Temple', Hubei Today, 2000. No.10, pp.25-26.

9) Sohu, Actual Photos of Jingzhou Taihui Temple, (2025.09.14.) m.sohu.com/a/434818400_779643

	
태회관 구산문	태회관 신산문
	
조사전(祖師殿)	조성문(朝聖門)
	
능소보전(凌霄寶殿)	약왕전(藥王殿)
	
낭낭전(娘娘殿)	삼관전(三官殿)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회관(太暉觀)의 구산문(舊山門)은 단청 사모지붕(單檐 歇山頂) 형식의 전목(磚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면은 암적색 분장(赭紅色 粉飾)으로 마감되어 있다. 중앙에는 삼개(三開) 아치형 출입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미(門楣) 정 중앙에는 금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태회관(太暉觀)’이라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어 전체적으로 장엄하고 단아한 형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신도들이 도관 공간으로 진입할 때 처음 마주하는 상징적이자 의례적인 경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돌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전혼(磚混) 가목식(假木式) 구조로 된 삼동 아치형의 ‘조성문(朝聖門)’에 이르게 된다. 이 문은 좌우 대칭이 뚜렷하고 구조가 단정하며,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의례 동선상 핵심적인 공간 경계점 역할을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석계단과 조성문(朝聖門)¹⁰⁾

계속해서 상행하면 태회관(太暉觀) 건축군의 중심부에 도달하게 되며, 고대(高臺) 위에 건립된 조사전(祖師殿)이 그 중심을 이룬다. 이 전각은 면폭과 심도가 모두 크고, 이중 처마의 사모지붕(二重檐 歇山頂) 형식을 채택하고 있어 도관 전체의 의례 운영과 신성 상징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전각의 전후에는 총 12개의 청석(靑石) 회랑 기둥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기둥에는 투각 기법으로 조각된 소용돌이치는 용 문양(蟠龍)이 새겨져 있다. 용두는 기둥 밖으로 우뚝 솟아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명대 도교 건축에서 보기 드문 고수준의 석조 조각 기술을 잘 보여준다¹¹⁾. 전각 내부의 들보와 가구 구조는 대부분 금사남목(金絲楠木)으로 제작되어 구조적으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도 매우 귀중하다. 기둥과 보, 사선 지지대 등의 접합부에는 채화(彩繪)가 광범위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그 소재는 운룡(雲龍), 서수(瑞獸), 권초(卷草), 화훼 등 다양한 도교 장식 여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체 공간에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시각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도교 궁전 건축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함께 구현하고 있다¹²⁾. 신단 중앙에는 금색으로 도금된 도교 조사(祖師)의 동상(銅像)이 봉안되어 있으며, 양측에는 호법신상(護法神像)과 의례 용구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배경에는 채색이 화려한 벽화 병풍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단정학(丹頂鶴), 상운(祥雲) 등 선계(仙界)를 상징하는 도상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10) 저자 직접 촬영

11) Zhang, W.,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Decorative Art of the Zushi Hall in Taihui Temple, Jingzhou. In Interior Design Society of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Ed.), ‘Proceedings of the 2014 China Interior Design Conference’ (pp. 130–135), China Water & Power Press, 2014.

12) Jiang, P., Op. cit. 2024, pp.69–74.

전체 봉헌 체계 내에서 시각적·종교적으로 명확한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조사전(祖師殿) 및 장식 세부¹³⁾

		
조사전 외부 정면 전경		
		
전면 석계 회랑 기둥	조각된 들보	채색된 들보와 기둥
		
조사전 내부 공간의 도교 조사 동상		

관내의 기타 건축물들인 약왕전(藥王殿), 삼관전(三官殿) 등은 각기 기능에 따라 약사(藥師), 천관(天官), 지관(地官), 수관(水官) 등 도교 신령을 봉안하고 있으며, 지붕, 투공(斗拱), 문액(門額) 등의 부위에는 일정 수준의 채화 및 조각 장식이 시공되어 있다.

태휘관(太暉觀) 전체 건축물은 구조 부재와 공간의 주요 결절점에 부조, 채화, 조각 등 다양한 시각 장식 요소를 폭넓게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식은 특히 조사전(祖師殿) 주변의 처마 기둥, 난간판, 투공(斗拱), 박공벽(山牆), 외벽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도

교 종교 공간의 신성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들 장식 부재는 석조(石彫), 전조(磚彫), 목조(木彫), 채화(彩畵) 등 다양한 재질과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풍부한 장식적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장은 태휘관(太暉觀)의 건축 형식과 공간 분포에 대한 객관적 고찰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를 통해 벽장식 구성 요소의 공간적 귀속 관계와 물리적 매개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이후 장에서 전개될 도상학, 예술 양식학, 공간 의례 기능에 관한 분석을 위한 구조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3. 태휘관(太暉觀) 벽장식 도상의 내용 및 기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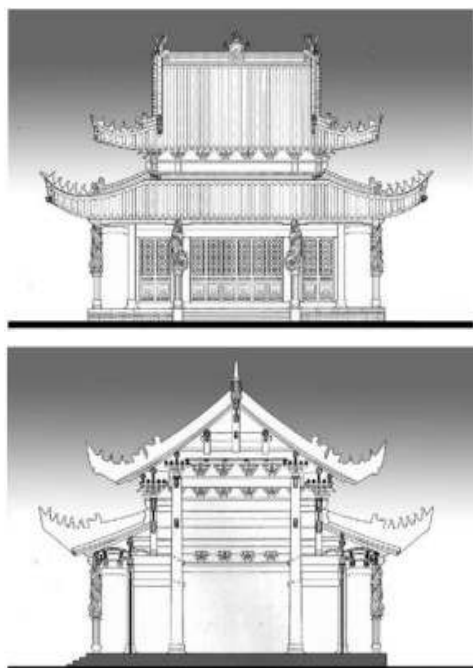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 경로와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상은 단순한 종교 공간의 장식 요소를 넘어, 신앙 서사와 의례 기능을 내포하는 시각적 기호 체계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의 구조와 의미를 총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도상학의 3단계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벽장식 도상을 다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는 형식 차원으로, 도상의 구성 방식, 조형 스타일, 색채 처리 등을 검토하며, 둘째는 내용 차원으로, 표현된 신격 유형과 문화적 주제들을 분석하고, 셋째는 기능 차원으로, 도상이 공간 맥락 내에서 수행하는 의례적 기능과 종교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이와 같은 ‘형식-내용-기능’의 계층적 구조는 도상학의 외형에서 내면으로 이르는 분석 논리와 자연스럽게 부합하며, 태휘관 벽장식이 지닌 시각적 층위성과 공간 내재성에도 밀접하게 대응한다. 이하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1. 형식적 고찰: 구성 질서, 표현 기법 및 색채의 통합 체계

앞서 언급했듯이,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의 중심은 조사전(祖師殿)이며, 이에 본 절에서는 조사전을 기점으로 하여 태휘관 전체 건축군의 벽장식 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전 및 그 부속 공간에 설치

13) Sohu, Op. cit..

된 벽장식 도상은 시각적 구성 측면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형식 체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체계는 명·청대 도교 궁관 건축 장식의 기본적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각적 질서를 통해 공간의 신성성과 종교적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설계 전략을 드러낸다¹⁴⁾. 벽장식 구성 요소는 석제 난간판, 박공벽(山牆), 외벽, 들보, 투공(斗拱) 등 다양한 건축 부위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조 조형, 도상 배치, 색채 조합, 재질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형식 의도와 상징적 조직 구조를 함께 보여준다. 그림 2에 제시된 조사전(祖師殿)의 입면도와 단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양식은 중국 고전 조형 특유의 정형성과 더불어 지역 민간 조각의 미감과 장인 전통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좌) 조사전(祖師殿) 입면도 / (우) 조사전 단면도¹⁵⁾

- 14) Li, X., & Li, X., 'An Analysis of the Regional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aoist Architectural Art in Sichuan', Sichuan Drama, 2017. No.10, pp.81-85.
- 15) Zhang, W.,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Architectural Decoration Art of the Patriarch Hall of Taihui Temple in Jingzhou', In 'Proceedings of the 2014 China Interior Design Conference', Interior Design Branch of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rchitectural

구성 방식 측면에서 볼 때, 태휘관(太暉觀)의 부조 도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속 서사형 구성으로, 주로 외벽 띠 모양 부조나 난간판 구역에서 발견된다¹⁶⁾. 둘째는 대칭형+집중형 단일 화면 구성으로, 문액(門額), 벽감(壁龕), 또는 산문(山門)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¹⁷⁾. 이러한 구성 전략은 시각적으로 명확한 질서감과 성직 위계 체계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연속 서사 도상 띠 방식으로 배치된 오백령관(五百靈官) 벽면에서는 인물들이 등간격으로 일렬 배치되며, 자세에는 약간의 변주가 있으나 전체 구조는 통일되어 있다. 이는 마치 군대 행렬을 연상시키는 시각적 리듬을 형성하며, 종교 제의에서의 '의장대와 같은 시각 경험과 밀접히 연동된다. 이러한 구성은 신도에게 심리적 위압감과 질서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반면, 대칭형+집중형 단일 구도의 비석 장식 및 문액 도상에서는 중국 고전의 대칭 구조 원칙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구성 방식은 중국 미학의 '중축+대칭' 공간 철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교 건축 내 성직 체계의 핵심 개념인 위계적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표 4] 태휘관(太暉觀) 벽장식의 주요 구성 방식 및 사례 분석¹⁸⁾

구성 유형	사례 이미지 및 시각적 특징
대칭형+집중형 구성	 도상은 조성문(朝聖門) 문액 위에 배치된 쌍룡희주(雙龍戲珠) 도상으로, 중앙 축을 기준으로 한 대칭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중심에는 용구슬(龍珠) 문양이 배치되었으며, 양측 용의 몸체는 서로를 반전시킨 형태로 배치되어 구조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Society of China, 2014, p.6.
DOI:10.26914/c.cnkihy.2014.002339.

- 16) Xia, P., 'Motion and Color: The Narrative Language of Wordless Book Imagery', Decoration, 2017. No.05, pp.118-120.
- 17) Heng Shengjie E-Commerce Information, 『No Aesthetics, No Marketing』, China Machine Press, 2017, p.444.
- 18) 저자 직접 촬영

구성 유형	사례 이미지 및 시각적 특징
도상띠형 연속 구성	 도상은 오백령관(五百靈官) 배치도(부분)로, 인물들이 등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자세에는 일정한 변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일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화면은 선형적으로 전개되며, 연속적인 서사감을 형성한다.

조각 및 회화 기법 측면에서 보면,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은 고부조, 저부조, 선각, 입체 부착(貼塑), 부분 채색 등을 결합한 복합적 표현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중 고부조(高浮彫)는 주로 신장(神將) 계열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예컨대 '용문(龍紋) 회랑 기둥 장식'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고부조는 형태가 입체적으로 충만하고 윤곽선의 굴곡이 크며, 조형 전체에서 강한 체적감과 힘의 동세를 강조한다¹⁹⁾. 저부조(淺浮彫)와 선각(線刻)은 주로 주란(周欄), 벽면의 부착적 인물 도상, 그리고 가장자리 장식 문양(예: '신장 벽장식', '난간 벽장식')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은 화면 내에서 시각적 리듬을 형성하고, 구도의 경계와 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²⁰⁾. 입체 부착(貼塑)과 채색(彩繪)은 주로 건축 부재 중앙의 핵심 문양(예: '용문 채색 장식')에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은 조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강렬한 색채 강조를 통해 도상의 계층감과 시각적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²¹⁾. 일부 장식 부재(예: '동물 중심 장식', '쌍룡회주(雙龍戲珠) 장식')에서는 '부분 입체-전체 평면'이라는 초점 응집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부조 주상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배경은 평탄화함으로써, 시각적 초점을 신앙의 중심 대상으로 유도하고 종교

19) Yang, J., & Sun, F., 'The Northern Zhou Stone Sarcophagus Tomb of Mr. Shi in Xi'an', *Archaeology*, 2004. No.07, pp.38-49+103-105+2.

20) Liu, Y., 'A Study on the Iconographic Features of Fuxi and Nüwa in Han Dynasty Pictorial Stones', Master's thesis, Sichuan University, 2005.

21) Xiao, J., & Ren, Y., 'Analysis of the Cultural Genes of Jieshou Polychrome Pottery and Their Design Translation', *Journal of Pingxiang University*, 2025. Vol. 42, No.01, pp.91-95+107.

도상의 심리적 지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조형 기법들은 공간 내 각기 다른 부재에서 '주상(主像)-보조상(次像)-테두리 요소(邊緣)'라는 분업적 구도를 형성하며, 시각 질서와 신성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종교적 공간 인식 장면을 조성한다.

[표 5] 조각 및 회화 기법과 사례 분석²²⁾

회화 및 조형 기법 유형	사례 이미지
고부조 기법 (高浮彫手法)	 용문 회랑 기둥 장식
	 신장 벽장
저부조 (淺浮彫)	 난간 벽장식
입체 부착+부분 채색 (貼塑+局部 彩繪)	 용문 채색 장식 (貼塑)
초점 응집 전략 (焦點 聚合)	 동식물이 초점이 되는 도상, 배경에 운문(雲紋) 장식
	 쌍룡회주(雙龍戲珠)가 초점인 도상, 운문 배경 장식

22) 저자 직접 촬영

인물 조형과 양식 표현 측면에서 태휘관(太暉觀)의 부조 인물들은 대체로 ‘정면 흉상+측면 신체’라는 복합 조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정면 구도의 강중함과 존엄함을 유지하면서도, 측면 동작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유입시켜, 선이 명확하고 윤곽이 뚜렷하며 동세가 다양한 시각적 특성을 구현한다. 전체적인 양식은 예술양식학(藝術樣式學)에서 정의하는 ‘선적(線的)-명확(明確)-다양(多樣)’ 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의 안면 구조는 깊이감 있게 조각되어 있으며, 이목구비는 과장과 변형을 통해 신격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눈썹과 눈매는 날카롭게 묘사되었고, 감정 표현은 풍부하여 전통 사묘 조각에서 중시되는 ‘전신달의(傳神達意)’의 조형 목표를 잘 보여준다. 복식은 주로 도포(道袍), 관복(官服), 갑옷(甲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장식 띠, 어깨 장식, 무릎 보호대 등의 세부 요소가 추가되어 장식적인 입체감과 인물 구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일부 석조 신장상(예: 좌식 영관상)이나 문루 석주 용문 장식, 신상(神像)의 수염 곡선 등 세부에서도 머리카락의 분리와 음각된 질감 표현이 정밀하게 처리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조형 기술과 ‘신격의 인격화(神格 擬人化)’라는 미학적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6).

[표 6] 인물 조형 및 양식 표현의 사례 분석²³⁾



23) 저자 직접 촬영

색채 사용 측면에서 보면, 일부 부조는 이미 퇴색 및 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복원된 도상 자료를 통해 석록(石綠), 주홍(朱紅), 천청(天靑), 등황(藤黃) 등 전통 색채의 흔적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형 구성 측면에서 볼 때, 벽장식에는 문양 반복, 도안 테두리 구성, 시각적 리듬 분할 등의 표현 기법이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 시각 디자인의 ‘프레임 분구(分區)-도안 분절(分節)-리듬 반복’이라는 형식 논리에 뚜렷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태휘관의 ‘신산문(新山門)’ 하부에서는 연속적으로 연결된 기하학적 테두리 장식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각적으로 장식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도상 그룹 간의 논리적 구획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식 구조는 전형적인 ‘도상 단위-시각 모듈(視覺 模塊)’ 특성을 지니며, 현대 시각 전송(視覺傳達) 디자인의 레이아웃 분란 원칙과도 형식상 유사성을 보인다 (표 7) .

[표 7] 태휘관(太暉觀) 벽장식의 색채 및 조형 구성 사례 분석²⁴⁾

	회형문(回形紋)
	수파문(水波紋)
	만(卍)자 문양

종합적으로 볼 때, 징저우 태휘관(荊州 太暉觀)의 벽장식 도상 체계는 고도로 질서화된 구성 방식, 강한 조형 긴장감을 지닌 조각 언어, 구조적으로 분명한 색채 분포와 문양 구획을 통해 명청(明清) 시대 도교 공간 건축에서 전형적인 ‘시각 서사-공간 위계-신앙 상징’의 삼위일체 형식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그 시각적 양식은 중국 고전 건축이 중시한 대칭미(對稱美), 장식미(裝飾美), 상징미(象徵美)를 계승함과 동시에, 민간 공예의 동세 표현과 감정 전달에 있어서의 자유로움도 융합하고 있다. 이는 전통 종교 건축의 시각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형식적 범례이자 분석 표본이 된다.

3-2. 내용 탐색: 제재 유형, 도상 구조 및 문화적 함의

24) 저자 직접 촬영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은 고도로 조직화된 형식 체계를 바탕으로, 내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주제성과 층위성을 함께 보여준다. 그 주제는 도교 신화, 호법 신앙, 종교 의례, 길상 상징, 민속 생활 등 여러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단지 시각적 장식 요소에 그치지 않고 도교 신앙의 핵심을 구현함과 동시에, 명청(明清) 시대 사회문화의 미적 취향과 가치 지향을 반영한다. 본 절에서는 앞서의 형식적 고찰을 토대로, 도상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식별과 문화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벽장식 도상이 어떻게 하나의 종교적 내러티브 체계를 구성하며, 동시에 시각 언어를 통해 공간의 상징적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재 유형 측면에서 볼 때,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관(靈官), 신장(神將), 호법(護法) 등을 주체로 하는 종교 성직자 도상이다. 대표적으로 조사전(祖師殿) 외벽에 조성된 오백 영관(五百靈官) 열상이 있다. 《무당복지총진집(武當福地總真集)》 권7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당산은 오백 영관이 거처하는 동천복지(洞天福地)로, 상제가 순행하는 곳마다 영관 오백 명을 배치하여 수도자를 보호·관리하게 하며,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하고 악행을 단죄하는 임무를 맡긴다.” 이들 인물은 현천상제(玄天上帝)가 무당산에서 도를 닦던 시기에 유래한 존재들로, 당시 상제의 부왕이 태자를 그리워하여 대신에게 병사 오백 명을 보내 태자를 궁으로 데려오도록 명했다. 그러나 이 ‘오백 부중(部衆)’은 오히려 태자에게 도를 배우겠다고 청하여 함께 산속에 은둔하였다. 태자가 성도(成道)한 이후, 오백 병사들은 모두 호법신(護法神)으로 봉해졌으며, 민간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오백영관(五百靈官)’이라 불렀다. 따라서 영관은 도교에서 일반적으로 ‘직능 수행자(行使 職能者)’ 및 ‘뇌화 사자(雷火 使者)’로 설정되며, 군사화된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대체로 갑옷을 입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뛰어오르거나 달리는 동작, 채찍을 휘두르거나 창을 들고 있는 포즈로 묘사되어 ‘뇌를 내리고 사악함을 몰아내는(行雷驅邪)’ 임무 특성을 강조한다. 부조에서는 몸통을 측면으로 틀고 머리와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자주 나타나며, 이는 속도감과 폭발력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외출 위를 날듯 도약하며, 망토가 흩날리고, 뇌령(雷令)을 쥐고 있는 신장상이 시각적 리듬의 고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법신은 '진살 위단(鎭煞 衛壇)'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일반적으로 얼굴이 사납고, 눈빛이 날카롭고, 상반신은 노출되며 맨발 상태로 표현된다. 또한 팔을 높이 들어 올리거나, 법구나 방망이를 들고 있으며, 상투가 위로 솟거나 옆머리가 흘날리는 형태로 역동적이고 강렬한 긴장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상은 벽면 양쪽의 구도 마감 요소로 자주 배치되어 시각적 중심을 정의하고 공간의 위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조각은 붉은 점토로 입체 부착하고, 검은 얼굴에 금빛 눈을 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동근 눈동자가 강조되고 위세가 넘치는 모습으로 전통 사묘의 '진섭(震攝)' 전략을 직관적으로 구현한다.

반면, 신장(神將)은 비교적 정적인 자세로 등장하며, 주로 '좌식 진전(坐姿 鎭殿)' 또는 '입식 영접(肅立 迎賓)'의 모습으로 조성된다. 이들은 정중한 얼굴, 넓은 체형을 특징으로 하며, 도포 또는 관복을 착용하고 활(笏), 명패(令牌), 보검(寶劍) 등을 들고 있어 궁전 출입 관리와 명령 수행의 직능을 상징한다. 벽면의 회색 석재 조각들이 이러한 도상을 담고 있으며, 일부 신장상에는 이름과 연도가 함께 새겨져 있어 신격의 제도화와 신앙의 고정화 특성이 드러난다. 이는 또한 교내 신도들이 제사 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 기능도 수행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오백영관(五百靈官): 영관(靈官), 신장(神將), 호법(護法)으로 구분됨²⁵⁾

25) 저자 직접 촬영

두 번째는 도교 고전 신화류 제재로, 주로 조사전(祖師殿)의 들보 장식(梁枋)과 채색 벽화(彩繪 壁畫)를 매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동빈(呂洞賓)의 수도 성도(修道成道)와 같은 신화적 서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도상은 일반적으로 분절된 서사 구조와 집중식 구성 방식을 채택하며, 대칭적 배열과 장식적 테두리 장치를 통해 내러티브의 중심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킨다. 예컨대, 조사전 채색화에는 여동빈(呂洞賓), 한상자(韓湘子) 등 팔선(八仙)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세밀한 선묘와 풍부한 색채를 통해 도교의 수선성도(修道成道), 권선적덕(勸善積德)이라는 교의(敎義)와 교화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와 같은 고전 제재 도상의 조직 방식은 신도들로 하여금 도교적 세계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적 측면에서는 도교 미학의 '청아하고(清雅)·표연한(飄逸)'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수선(修仙) 제재 목조 도상(木彫)²⁶⁾

셋째, 세속 길상(吉祥) 도상은 주로 외부 회랑, 난간판(欄板), 보조 공간 등의 위치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제재로는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다(鯉魚跳龍門)', '재자 가인(才子佳人)', '무예 오락(習武娛樂)', '용문(龍紋)' 등이 있다. 이러한 도상들은 생동감 있고 활기찬 화면 구성을 특징으로 하며, 승진·부귀·안강(安康) 등 세속 사회가 추구하는 길상적 바람과 복덕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휘관(太暉觀) 전면 석주(石柱)에 조각된 용문(龍紋) 도상은 깊은 역사문화적 맥락과 상징적 함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용문은 중국 전통 예술 문양 가운데 오랜 역사와 완성된 조형 체계를 갖춘 대표적 요소로, '중국 전통 문양의 으뜸(中國傳統圖案之冠)'이라 불릴 만큼 상징성과 권위를 지닌다. 일반

26) 저자 직접 촬영

적으로 상서로움(祥瑞)과 길상(吉祥)을 상징하며, 다양한 문화적 계층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용(龍)은 본래 도톰(토템) 신앙에서 비롯된 도상으로, 그 기원은 뱀 혹은 뱀과 유사한 동물에 대한 숭배와 관련된다. 철학자 리저허우(李澤厚)는 『미의 여정(美的歷程)』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용의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확립된 과정은, 뱀이나 용류 동물을 숭배하던 어떤 씨족이 다른 부족을 정복한 이후, 각 부족의 도상 중 우수한 요소를 통합하여 형성된 종합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톰(圖騰)은 점차 승리를 기원하고 평안을 바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해당 도상의 문화적 함의는 쉽고 직관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민간의 소박한 기복(祈福)·평안 염원을 도관(道觀) 공간에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데 있다.

이는 민속 신앙과 도교 의례 문화 간의 상호작용적 융합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전통 도상에 내재된 신성성과 현실적 염원이 하나의 시공간 내에서 공존하는 상징 구조를 잘 보여준다²⁷⁾. 도교 문화 맥락에서 용문(龍紋)은 단지 권력과 존귀함의 상징성을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힘과 신령에 대한 경외와 숭배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핵심 도상으로 작용한다. 또한, 용문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수문(水紋)과 상운문(祥雲紋)은 문양 체계에 더욱 풍부한 길상(吉祥) 의미를 부여한다. 수문은 끊임없는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하고, 상운문은 인간이 길조(吉兆)를 염원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그중에서도 청운문(靑雲紋)은 ‘청운에 올라 출세하다(平步靑雲)’는 의미를 담아 출세와 승진, 순조로운 앞날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태휘관(太暉觀) 전면 석주에 조각된 용문, 수문, 상운문의 복합적 조합은 단순한 시각 장식을 넘어, 도교 건축 공간에 숭엄한 성스러움과 예술적 감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길상적 인생·순조로운 관운 등을 기원하는 다층적인 문화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는 태휘관 벽장식 도상 체계 속에서 매우 깊이 있는 정신적 내포와 문화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 기호이다²⁸⁾.

27) Li, Z., 『The Path of Beauty [in Chinese]』, Shanghai: Sanlian Bookstore, 2019, p.8.

28) Ban, K., 『An Illustrated Compendium of Traditional Chinese Patterns (Volume I) [in Chinese]』, Beijing: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2, pp.2-15.



[그림 5] 세속 길상류 도상(世俗 吉祥類 圖像)²⁹⁾



[그림 6] 용문이 조각된 석주(龍紋 廊柱)³⁰⁾

29) 저자 직접 촬영

30) Wang, X., 'A Preliminary Study on the

종합적으로 볼 때,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은 내용 측면에서 성직 인물, 도교 신화, 세속 길상 제재를 아우르며, 풍부한 주제 층위와 내러티브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상징적 측면에서 이러한 도상들은 형상화된 시각 기호 체계를 통해 종교 공간의 성스러움과 위계 질서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호법신장과 영관 형상은 사악함을 물리치고 길상을 부르는 기능을 강하게 시사한다. 문화적 함의에 있어서는, 이들 벽장식은 명청(明清) 시대 도교 문화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미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속 신앙과 도교 교의 간의 상호 작용적 융합을 심도 있게 보여준다. 이는 곧, 태휘관 벽장식이 하나의 완결된 시각 문화 표현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3. 의례 공간에서의 벽장식 도상의 구성 작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은 내용상으로 성직 인물, 도교 신화, 세속 길상 제재를 포괄하여, 풍부한 주제 계층성과 내러티브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성직 도상은 명확한 위계 표현과 체계적인 구도 원리를 통해 질서감 있는 시각 체계를 구축하며, 종교 의례에서의 상징적 경계성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신화 제재는 연속 서사와 고사 재현을 통해 신도들에게 수도의 모범과 교화적 가치관을 전달하고, 민속 길상 도상은 대중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종교 공간과 민간 미감 간의 간극을 좁혀, 신앙의 친화적 확산과 정서적 공감을 가능케 한다.

의례 공간 기능의 구축 측면에서 볼 때, 태휘관(太暉觀)의 벽장식 도상은 단순한 시각 장식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 의례 공간의 구조적 리듬과 심리적 유도 체계에 깊이 통합된 시각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건축 배치로 보아,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중축선상의 의례 동선에 따라 벽장식 도상은 외곽 공간의 민속적 제재에서 출발하여, 핵심 공간으로 갈수록 성직 도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며, 세속에서 신성으로 향하는 시각적 논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배치는 공간 계층 구조 차원에서 신도들이 종교적 분위기 속으로 점차적으로 몰입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으로도 ‘신을 향한 예경(敬神)의 의례 구조’에 대한

체감 인식을 강화한다. 특히 조사전(祖師殿) 전후의 핵심 공간 노드에는 호법신장과 영관의 고부조(高浮彫) 형상이 밀도 높게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감각적으로 ‘성역을 수호하는 분위기장’을 조성한다. 이들 도상은 얼굴 표정, 신체 자세, 상징 도구 등의 표현을 통해, 관람—감응—신앙 몰입이라는 감정의 단계적 이행을 관람자의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벽장식 도상은 단순히 장식 기능에 그치지 않고, 서사와 기록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일부 조각에는 명문(銘文)이나 제문(題款)이 병기되어 있어, 신앙의 정체성과 교단 내 위계를 명시함으로써 종교 제도와 신앙 전파의 시각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태휘관의 벽장식 도상은 도교 공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구성된 시각 체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내용 서술—상징 질서—문화 의미를 관통하는 다차원적 시각 구조 메커니즘을 구성하며, 이는 전통 종교 건축에서 형(形)—의(意)—경(境)의 통일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4. 소결

태휘관(太暉觀) 벽장식 도상의 형식 구조, 도상 내용, 공간 내 내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장식 체계는 단순한 미적 장인 기술을 넘어, 명청(明清) 시대 도교 궁관(宮觀)에서의 공예성과 미학적 정합성을 고도로 융합한 결과물이며, 동시에 종교 의례와 신앙 의미에 깊이 뿌리내린 시각적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형식 측면에서는, 부조 및 채화(彩畫) 구성 요소들이 구도의 리듬, 조형 기법, 색채 분할 등을 통해 높은 질서성과 상징성을 드러내며, 종교 공간에서 시각적 주도 시스템을 구성한다. 내용 측면에서는, 도상 제재가 성직 계보, 신화 서사, 민속적 상징 의미를 아우르며, 명확한 기호 위계 및 문화 표현 논리를 수립한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각 도상 요소들이 ‘외곽—핵심’의 분포 원리 및 ‘속(俗)—신(神)’의 주제 전개를 따라 산문(山門)에서 조사전(祖師殿)까지의 의례 동선에 정교하게 삽입되어, 종교 공간 내 시각적 유도, 감정 촉발, 신앙 구축의 다중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한다.

본 장에서는 도상학의 삼단계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측 이미지 자료 및 공간 맥락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태휘관(太暉觀) 벽장식 도상이 종교 공간 구성의 매개체로서 작동하는 구조적 메커니즘과 문화적 논리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 인식—내용 해석

—공간 참여의 분석 경로는, 도교 건축 내에서 도상이 지니는 성스러운 질서 조직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종교 도상의 상징적 의미 해석 및 시각 양식 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상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실지 조사 자료와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징저우(荊州) 태휘관(太暉觀) 조사전(祖師殿) 및 그 벽장식 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형식-내용-공간”의 3차원적 탐구를 통해 벽장식 도상이 종교 서사, 시각적 구축 및 의례 경로에 깊이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태휘관 벽장식 도상은 내용 면에서 도교의 신직 체계와 민간 문화의 상징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형식 면에서도 질서 있는 구도, 집중된 기호, 총위화된 색채 체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도상은 건축 구조, 신앙 의미, 공간 위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단순한 “장식”에서 “신앙의 가시화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며, 미적 표상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각적 신성 질서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밝힌 “형식 질서-서사 내용-공간 기능”의 삼위일체적 논리는 지역 도교 건축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는 완결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도상이 종교 의례와 공간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힘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태휘관 벽장식은 건축에 부착된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종교 서사와 신앙 경험의 생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요소이며, 도상을 핵심으로 하는 “시각-공간-신앙”의 유기적 체계를 드러낸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를 넘어 제시하는 중요한 학술적 주장이다.

학문적 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교 시각문화 이해를 위한 명확한 분석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도상학적 방법을 중국 전통 종교 건축 연구에 토착화하여 적용하는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특히 도상 내용과 공간 조직의 결합 관계, 시각적 리듬과 의례적 리듬의 대응 메커니즘을 강조함으로써, 도상이 어떻게 시각적 유도와 서사 구조를 통해 종교적 분위기의 재생산을 실현하는지를 드러내어 중국 종교 미술사 연구의 차원을 넓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태휘관 사례 연구의 틀을 보다 광역적이고 비교 종교 건축 유형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교 궁관, 불교 사찰, 민간 사묘 등 다양한 신앙 공간 간의 비교를 통해 도상 기호의 지역적 변이와 문화적 이동 규칙을 탐색하거나, 출토 유물, 종교 경전, 지방지 등과의 교차 텍스트 분석을 통해 벽장식 도상의 연원, 변천 및 사회적 기능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3D 모델링, 이미지 인식, 가상 복원 등 디지털 기술의 개입은 전통 벽장식 연구에 더욱 정밀한 가시화 재현과 학제 간 전파를 가능케 할 것이다. 중국 지역 도교 건축 가운데 장식 체계가 가장 온전히 보존된 사례 중 하나인 태휘관은 앞으로도 종교 미술사, 시각문화 연구, 디지털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 학술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다.

참고문헌

1. Ban, K., 『An Illustrated Compendium of Traditional Chinese Patterns (Volume I) [in Chinese]』, Beijing: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02
2. Heng Shengjie E-Commerce Information, 『No Aesthetics, No Marketing』, China Machine Press, 2017
3. 『Jiangling County Gazetteer, Volume 64: Temples and Monasteries』, Guangxu 2nd Year of the Qing Dynasty, 1876
4. Li, Z., 『The Path of Beauty [in Chinese]』, Shanghai: Sanlian Bookstore, 2019
5. Panofsky, E.,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Routledge, 2018
6. Zhang, W.,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Decorative Art of the Zushi Hall in Taihui Temple, Jingzhou. In Interior Design Society of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Ed.), 『Proceedings of the 2014 China Interior Design Conference』(pp. 130-135), China Water & Power Press, 2014

7. Jiang, P.,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Form and Decorative Features of the Zushi Hall in Taihui Temple, One of the "Three Temples" of Jingzhou', *Ancient Architecture and Garden Technology*, 2017. No.03
8. Li, X., & Li, X., 'An Analysis of the Regional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aoist Architectural Art in Sichuan', *Sichuan Drama*, 2017. No.10
9. Wang, G., & Zhou, D., 'Random Notes on Taihui Temple', *Hubei Today*, 2000. No.10
10. Wang, X., 'A Preliminary Study on the Architectural Art of Taihui Temple in Jingzhou', *Huazhong Architecture*, 2004. Vol.2004, No.03
11. Xia, P., 'Motion and Color: The Narrative Language of Wordless Book Imagery', *Decoration*, 2017. No.05
12. Xiao, J., & Ren, Y., 'Analysis of the Cultural Genes of Jieshou Polychrome Pottery and Their Design Translation', *Journal of Pingxiang University*, 2025. Vol. 42, No.01
13. Xu, W., 'On the Death of Prince Zhu Bo of Xiangxian', *Journal of Yangtze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08. Vol.31, No.05
14. Yang, J., & Sun, F., 'The Northern Zhou Stone Sarcophagus Tomb of Mr. Shi in Xi'an', *Archaeology*, 2004. No.07
15. Yi, Z., 'An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Banknote Designs of the Farmers Bank of China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Hunan Packaging*, 2021. Vol.36, No.05
16. Zhang, W.,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Architectural Decoration Art of the Patriarch Hall of Taihui Temple in Jingzhou', In 『Proceedings of the 2014 China Interior Design Conference』, Interior Design Branch of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2014
17. Liu, G., 'An Analysis of the Formal and Symbolic Connotations of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al Ornamentation', Master's thesis, Tsinghua University, 2004
18. Liu, Y., 'A Study on the Iconographic Features of Fuxi and Nüwa in Han Dynasty Pictorial Stones', Master's thesis, Sichuan University, 2005
19. m.sohu.com